

2012년도 공모사업 분야별 심사평

본 심사평은 분야별 각 책임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문학분야 심사평

- 일시 : 2012.04.17(화), 14:00~17:00 (인터뷰심의 병행추진)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강은교, 김재용, 구효서, 정미경, 이성겸

<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 지원 >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은 총 26건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총 6건이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계획의 예술적 수월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심의하였다. 국외 창작거점에 예술가를 파견하여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한다는 본 사업의 취지상 지원신청자의 예술적 성취를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창작거점파견 체험을 문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고려하였다. 해외 예술가들과 상호교류하고 자신의 작품을 알리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신청자의 외국어 구사능력도 함께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에 대한 문단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동안의 사업을 통한 성과를 엿볼 수 있었다.

심의 결과 극지아라온호에는 한정기(아동문학 작가),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는 최명숙(극작가),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에는 김형수(소설가), 인도 인코센터에는 김정숙(소설가),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교에는 조용미(시인), 타슈켄트 국립니자미대학교에는 채길순(소설가)을 최종 선정하였다.

<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은 총 9건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4건이 선정되었다. 개인의 작품 창작이 주가 되는 문학 분야의 특성상 사업 신청 건수는 적은 편이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국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개인보다는 단체에 비중을 두었으며, 세부 장르별 균형도 함께 고려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장시간의 집중토론을 거쳐 신청 사업 계획의 참신성과 구체성, 신청 사업을 통한 한국문학의 영역 확장 가능성 등에서 지원효과가 기대되는 사업들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학 분야의 특성상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이 타 장르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으며, 문단에서 좀 더 다양한 지역과 특화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신선한 국제교류사업이 기획되기를 기대한다.

문학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시각예술 분야 심사평

- 일시 : 2012. 4.20(금), 10:00~17:00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 심의위원 : 김성원, 김성희, 윤진섭, 이지호, 김찬동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공모는 2012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97건의 신청 사업 중 12건을 선정하였다. 사업 신청 건수는 정기공모 못지 않게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제적 인지도,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네트워크 구축 면에서 탁월한 사업이 적은 편이었다.

본 사업 선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사업의 경우 기획자의 해외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 가능성, 해외 기관의 인지도 및 유수의 국제 비엔날레 초청 여부, 참여 작가의 활동 역량, 전시 기획 주제 및 소재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교류사업은 공공적 의미, 초청작가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제교류를 위한 세미나의 경우 아시아 저널 교류, 그리고 유럽 미디어 아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사업의 경우 수시공모의 특성상 급조된 사업이나 비슷비슷한 수준의 사업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필요하다면 수시공모 시에는 신청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청사업 전반에 국제교류 다변화의 흐름이 반영되어, 기존의 아시아 중심 패턴에서 벗어나 유럽, 남미, 북미, 호주 등으로 대상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 했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국제교류 중기기획 프로젝트 지원 2차 공모의 경우 총 6건의 신청 사업 중 4건을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2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 사전 준비가 필요한 작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정된 사업은 단발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에 따라 지속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행 첫 해라는 특성 상 사업 신청률이 저조한 편이었으며 신청 사업들도 프로젝트의 컨셉이나 리서치 방법, 실현 가능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가능한 한 리서치 과정이 탄탄하며 프로젝트의 미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선정하였으며, 프로젝트의 규모와 내용, 기획자 및 참가자의 활동 역량 등도 주요 심

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단, 현실성을 감안하여 신청 예산액을 대부분 삭감 조정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2차 공모의 경우 신청서류 및 포트폴리오, 참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설명 자료를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총 43건의 신청 사업 중 13건을 선정하였다.

본 사업의 특성 상 신청자의 역량 및 국내 활동 실적, 초청 레지던스 기관의 국제적 인지도 및 네트워크의 강화 요건 등을 주요 심의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외 체류 기간 동안 활동의 실효성이 높은 신청자들을 우선 선정하였다. 일부 레지던스의 경우 우리 작가들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던 미개척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본 사업의 한정된 지원예산을 고려하여 기업의 지원을 받는 신청자들보다는 기금 외 타 재원 수혜가 어려운 신청자들을 우선 지원하였다.

<노마딕예술가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노마딕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아르코의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으로, 2008년 몽골 노마딕 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몽골, 이란, 바이칼, 세네갈(무용 분야)로 확대되었다. 시각예술 분야는 몽골 4건, 이란 4건, 바이칼 7건으로 총 15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거쳐 몽골 노마딕은 성용희 팀, 이란은 고동연 팀, 바이칼은 김지연 팀을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특성상 새로운 환경에 기민하게 적응하며 새로운 작업을 펼칠 수 있는 순발력과 역량을 갖춘 팀을 우선 선정하였다. 또한 기획자의 사업 실행 능력 및 참가자들의 순조로운 협업 가능성, 진출하는 지역의 지정학적 여건, 참가 작가의 역량 및 대상 지역과 작가의 작업 연계성 등을 고려하였다.

시각예술 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연극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 4.25(수), 17:00~19:3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2층 회의실
- 심의위원 : 김방옥, 곽병창, 이은경, 구태환, 황치준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연극분야에는 총 28개 사업이 지원신청되었다.

사업 수행단체의 역량, 신청 작품의 예술성 수월성, 해외 초청단체의 신뢰성 및 국제 교류를 통한 연극계의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청된 28개 사업에 대해 심층토론을 거쳐 지원여부를 논의하였다. 연극이 지닌 소통의 본질을 잘 구현하고, 국제적 교류에 기여할 만한 작품과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벌, 일본 오키나와 키지나무 페스티벌 등 동일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사업들의 경우, 단체의 역량, 작업과정의 참신성, 해당 페스티벌 참가를 통한 단체의 발전가능성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였다.

지원결정된 사업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연극계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제교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지원>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지원사업 연극분야에는 총 2개 사업이 지원신청되었다.

해외예술인의 초청을 통해 우리나라 연극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해당되는 사업이 없어 지원단체를 선정하지 않았다. '국제아동청소년 연극협회 한국본부'의 신청사업의 경우 기 지원이 확정된 '아시테지 여름축제'와의 중복성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하였다. 뮤지컬 'Pillow Man' 작가 초청 사업은 2012년 재공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연의 부대사업 성격이어서 지원에서 배제하였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사업 연극분야에는 총 1개 사업이 지원신청되었다.

본 사업의 경우 중기적 접근과 기획이 필요한 사업으로, 차년도 중기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충실한 기획성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신청 단체의 그 동안의 공연이 평단과 관객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점은 인정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지 않았다. 장기 프로젝트의 준비 사업

을 지원하는 우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체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향후 연극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극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무용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 4.23(월), 16:00~19: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2층 회의실
- 심의위원 : 박재희, 장선희, 최성욱, 김예림, 황치준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무용분야에는 총 38개 사업이 지원신청되었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를 심의기준으로 검토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단체나 안무자의 경력과 역량을 가장 크게 고려하였으며, 사업별로 국제교류의 의미와 우리나라 무용계에 대한 기여도를 검토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공연장의 확정 여부, 초청장 발부 여부, 참여자 확정 등의 사업계획의 신뢰도도 고려하였다. 연도 중반에 신청 접수를 받았음에도 좋은 프로그램 신청이 많아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였다.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지원>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지원사업 무용분야에는 총 1개 사업이 지원신청되었다.

‘디아츠엔코’의 ‘CollaboLab-영화 창작 기법을 도입한 안무 방법의 개발’ 사업으로 초청대상자인 영국 라반 센터의 Tony Thatcher는 인지도와 무용계에서의 영향력으로 볼 때 초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2011년 한국공연예술센터의 사업에 참여한 바 있음) 또한, 국내 기획자의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어 사업 실행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방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사업 무용분야에는 총 3개 사업이 지원신청되었다.

개별단체나 개인이 추진하는 사업 보다는 거시적으로 한국무용계를 대표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다 규모가 큰 축제행사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기적 접근과 기획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이번 심의에는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는 단체가 신청 없어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않았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사업 무용분야에는 총 3개 사업이 지원신청되었다.

레지던스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신뢰도, 프로그램 기간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자의 경력도 고려하였으며,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선발하고자 하였다.

미국 ADF프로그램 참가의 경우 무용수의 상해예방이라는 프로그램 목적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신청인의 역량도 인정되어 지원을 결정하였다. 핀란드 Pori Dance Festival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세계적으로 인정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였다. 그외 경우 2012년 차세대 예술인력육성지원대상이므로 지원 중복성이 있어 배제하였다.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무용분야에는 총 1개 사업이 지원신청되었다.

신청인이 프로그램에 대한 뚜렷한 참가동기 및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전통적 리듬과 아프리카의 리듬을 접목시키고, 여기에 현대무용을 중심으로 공동 작업을 하고자 하는 독창성이 인정되었다. 신청인의 활동경력과 역량이 인정되고, 사업계획도 충실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였다.

무용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음악분야 심사평

- 일시 : 2012. 4.24(화) 15:30~18: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2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김창재, 이택주, 한방원, 장일범, 김창욱

<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

2012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에는 총 40건의 지원신청이 있었으며, 총 8개 단체에 9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신청을 한 단체들의 상당수는 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공연예술창작기금 지원 및 음악특성화사업 등을 통해 성장하여 국제교류로 활동의 외연을 넓히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아 무척 고무적이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의욕적으로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수많은 신진단체들의 지원신청서들도 심의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은 결국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 교류대상 사업의 인지도 및 예술적 수월성과 사업 수행 역량, 교류 초청 조건의 상호 호혜성, 그리고 사업의 파급효과 등으로 귀결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여 활동을 펼쳐 온 단체와 개인들의 국제 활동에 대한 지원은 단체들의 활동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지만, 그를 통해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 동안 해당국가와 여러 해 동안 꾸준히 교류해오던 단체의 사업들 역시 단체의 지속적인 열정과 수교 기념행사로서의 계기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지원을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음악인들에게서 좋은 평을 듣고 있는 단체들과 신진예술가들에게도 이 기금지원이 앞으로의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기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주목할 사업이 많이 있었다. 공연기획사들의 해외연주자 초청 공연은 상호 교류와 창조 역량 강화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다. 근래 범람하고 있는 해외단체의 내한 공연들과 차별성이 있는 신선한 기획력과 한국의 예술가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사의 규모나 사업 파급력 등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예술적 수월성이 부족한 사업들과 다른 행사의 부대프로그램으로 음악 공연이 들어가는 사업들 역시 지원 결정을 하는데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었다.

또한, 사업 신청서들의 내용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사업들 역시도 많은 고민을 하게 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들의 노력이 중요하겠다. 이 뿐 아니라, 예술위원회 사무처의 적극적인 컨설팅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업을 지원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원신청하신 예술가와 단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 지원 >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기존의 국내에서 개최되던 국제교류사업이 국내의 특정단체와의 성과로만 남던 것을 개선하고, 예술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규모와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2012년 1차 공모때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 번 2차 신청에서는 1차 때 신청하였던 단체의 사업이 별다른 보완없이 신청되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심의 때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이 번 공모에서도 지원을 결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는 개별 공연이나 프로젝트 지원의 한계를 벗어나, 다년간의 준비가 필요한 해외 페스티벌로의 진출이나, 국제 총회 유치 및 총회 활동,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나 페스티벌의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동 사업은 일회성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국제교류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큰 파급효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 번 지원신청에서는 주목할 만한 지원단체의 신청이 없었고, 지원신청을 한 단체 역시 이 전에 지원 결정이 되지 못한 사업을 별다른 보완 없이 신청하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파급효과나 기획력 등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고, 검토 결과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성격이 강해 중기적 관점이나 기대효과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번 공모에서는 지원대상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좋은 사업들의 신청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음악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전통예술분야 심사평

- 일시 : 2012. 4.20(금) 09:30~12:00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 1
- 심의위원 : 신혜영, 임준희, 김만석, 김성욱, 이정만

<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

2012 국제문화예술교류 전통예술분야에는 총 42건의 지원신청이 있었다. 전통예술의 특성상 국악공연뿐 아니라 무용, 전시, 학술행사 등 다양한 세부 장르의 사업들의 신청이 있었는데, 많은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국제교류사업을 해오던 단체들이었고, 신진단체의 지원신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원심의회 단체나 개인의 예술적인 수월성, 사업 수행 능력과 신뢰도, 사업 내용의 구체성 등을 유념해 보았으며, 아울러 장르별, 지역별로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그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3개, 전시분야 1개를 포함한 총 9개 사업에 1억4천만원을 지원 결정하였다.

지원결정된 사업들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특별히 판소리와 플라멩코의 만남은 최근 해외에서 흥미로워하는 주제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한정된 기금으로 모든 단체들에게 기회가 가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원신청을 해 주신 모든 단체들의 발전을 기원한다.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 지원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에는 한 건의 지원신청이 있었다. 레지던스프로그램이 원래 시각예술분야에서 시작되어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해외 연주자들과의 기획 프로젝트, 녹음 및 워크숍, 페스티벌 레지던스 아티스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전통분야 예술가들이 관심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한다. 지원신청한 사업 역시 뉴욕에서 전통음악 레코딩 및 워크숍을 하는 프로젝트로 사업의 수월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결정하였다. 향후 우리 전통예술가들도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지원신청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 지원 >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사업은 예술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사초청사업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다. 이번 2차 신청에서는 1건의 지원신청이 있었으나, 신청한 사업이 다른 페스티벌과 연계되어 있고, 수행 프로그램의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원 결정을 하지 않았다.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는 다년간의 준비가 필요한 해외 페스티벌로의 진출, 새로운 국제 프로젝트나 페스티벌의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신청한 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는 다년간의 프로젝트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지원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 사업에 신청하는 단체들은 다년간의 활동이 어떻게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로 귀결될지 지속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앞으로 좋은 사업들의 지원 신청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예술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컨설팅과 사업개발을 통해 전통예술분야 국제교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통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다원예술/예술일반분야 심사평

- 일시 : 2012. 4.21(토) 10:30~12: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강석란, 김미은, 박인석, 김윤희 (김성연 위원 불참)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는 문화예술 국제교류사업의 사전 준비와 밀도를 높여 세계적인 축제조직이나, 아트센터, 기타 예술교류 거점이나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획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 사업은 일회성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국제교류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큰 파급효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금번 2차 공모에는 총 4건의 프로젝트가 신청되었는데 신청사업들 중에는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도 있었지만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성격이 강해 중기적 관점이나 기대효과가 다소 부족한 사업들도 있었다. 책임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와 심의위원간 깊은 토론을 통해 1번 김성희의 ‘벨기에 쿤스텐 페스티벌 한국예술작품 교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동안 다원예술 축제인 ‘페스티벌 봄’을 통해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온 성과와 아시아예술극장 감독으로 최근 선임된 프리 라이젠 감독과의 연계성도 높아 2013년 이후 한국과 벨기에간 규모 있는 예술교류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내리라 기대되었다.

이외에도 기획성 있는 사업들이 신청되었으나 중기적인 관점이 부족한 연례성 사업의 성격이 강하거나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아무쪼록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프로젝트가 충실히 준비되어 2013년도에는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는 교류프로젝트로 화답해 주기를 기대한다.

<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 지원 >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창작 역량 강화와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장르별 주요 해외 예술인을 초청하여 워크숍,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예술위원회와 함께 기획 운영하는 사업이나, 동 사업유형에 신청된 사업은 이 지원사업이 추구하는 사업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책임심의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을 결정하지 않았다.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

2012년도부터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사업에 다원예술 분야가 포함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으나 다원예술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예술현장의 예술가

들의 수요는 아직까지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사업에는 총 1명이 신청했으며 신청자는 무용분야와 다원예술 분야 2곳에 별개의 레지던스 성격의 프로젝트를 신청하였으나 무용분야의 사업계획이 상대적으로 충실하여 다원예술분야에 제안한 사업은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아무쪼록 본인의 예술창작프로젝트와 작가로서의 성장에 레지던스 참여 경험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다원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계를 무대로 예술활동을 펼치기를 희망한다.

다원예술/예술일반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